

#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 고용 호조와 기술주 반등으로 활기 찾은 뉴욕증시

- 주요 지수 모두 상승: 러셀2000 +1.7%
- 미국 고용지표 호조로 경기침체 우려 완화
- 트럼프-머스크 갈등 진정에 기술주 강세

### Summary

미국 증시는 고용지표 호조로 투자심리가 개선됨에 따라 1%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마감함. S&P500 지수는 1.03% 상승한 6,000.36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1.20% 상승한 19,529.95에,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05% 오른 42,762.87에 거래를 마쳤음. 특히 러셀2000 지수는 1.66% 상승하여 2,132.25로 거래를 마감함. 미국 노동부의 5월 비농업 고용지표는 전문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13만9천명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실업률은 4.2%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 이러한 고용 시장의 안정성은 경기침체 우려를 완화시키며 주요 주가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음.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머스크 테슬라 CEO의 공개 설전이 일단락됨에 따라 테슬라 주가는 반등하며 기술주 매수세를 강화하였음. 기술 대형주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엔비디아 또한 각각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 강세를 이끌었음. 반면, 브로드컴은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잉여현금흐름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5% 하락하였고, 롤루레몬은 관세 불확실성으로 연간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한 후 주가가 20% 급락하였음.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VIX)는 9.25% 떨어진 16.77을 가리켰음. 이러한 증시의 전반적인 상승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도 영향을 받으며 향후 경제지표 발표와 연준의 대응에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음. S&P500, 나스닥, 다우지수, 러셀2000 지수 모두 상승한 가운데, 시장의 향후 변동성이 어느 정도까지 나타날지 관측이 필요함. (다우 +1.05%, 나스닥 +1.20%, S&P500 +1.03%, 러셀2000 +1.66%)

### 특징종목

애플(+1.6%)은 인도 시장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에 의해 주가 상승이 나타남. 이는 타타 그룹과 손잡고 아이폰 및 맥북 수리 서비스를 확장함으로써 인도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임. AI 분야에서의 부족한 성과는 우려 사항이지만, 자사 모뎀 개발을 통해 퀄컴에 대한 매출 위협을 시사하며 장기 성장 기대를 높임. 아마존(+2.7%)은 미국과 중국 간의 긍정적인 협상 대화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며, 대만 AWS 지역에 50억 달러 이상 투자 계획 발표로 클라우드 컴퓨팅 확장 기대가 부각됨. 브로드컴(-5%)은 2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매출 전망을 발표하며 주가 하락을 초래함. 높은 기대치가 깨졌다는 실망감이 매도세로 연결됨. 롤루레몬(-20%)은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했고, 연간 실적 가이드를 하향 조정하면서 급락; 불확실한 거시경제 환경이 영향을 미침. 마이크로소프트(+0.6%)는 쿠웨이트 투자기금과의 파트너십으로 AI 인프라 확장이 기대되며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구글(+3%)은 AI 투자와 엔지니어링 인력 확장 계획 발표로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 DOJ 관련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주가 상승에 기여함. 메타(+1.9%)는 20년간의 원자력 에너지 사용 계약으로 AI 및 컴퓨팅

자원 확보를 강화함. 팔란티어(+6.5%)는 AI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성과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브로드컴의 AI 매출 성과 발표가 상승 촉진 요인으로 작용. 엔비디아(+1.2%)는 AI 수요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주가 상승을 보임. 모더나(+5.1%)는 COVID 부스터 백신에 대한 잠재적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 테슬라(+3.7%)는 전기차 및 기술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시각과 엘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사이의 갈등이 주가 변동에 영향을 줌.

####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미국 10년물 국채가 4.45%로 상승했음. 이는 미국의 예상보다 강한 고용 지표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감소로 인해 발생한 결과임. 다른 주요 국가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역시 변동을 보이며, 브라질은 0.23% 상승한 14.24%를 기록했고 러시아는 -0.21% 하락해 15.30%를 보임. 외환 시장에서는 미국 달러 인덱스가 99.19로 하루 동안 0.45% 상승함. 이는 미국의 고용 데이터가 예측을 상회하며 달러 강세를 유도한 결과임. 주요 통화들의 등락도 눈에 띄는데, EUR/USD는 1.13으로 0.45% 하락했으며 USD/JPY는 144.82로 0.89% 상승했음. 상품 시장에서는 WTI 원유가 하루 동안 2.21% 상승해 64.77 달러를 기록함. 이는 미중 무역 협상 재개 기대감과 함께 공급 조정 가능성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됨. 은과 금의 가격도 차이를 보이며, 은은 0.86% 증가한 35.97 달러, 금은 1.28% 감소한 3309.84 달러를 기록함.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